벤 ◎ 처 ◎ 레 ◎ 이 ◎ 더

Venture Radar

벤처 프라이머리 CBO 만기연장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5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2조2000억원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 만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보증으로 전환,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 · 벤처기업 가운데 20%정도는 만기에 전액 상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대략 원리금의 절반가량(원금기준 20%)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만기연장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만기도래하는 벤처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 일단 기업들이 갚도록 유도한 후 갚을 여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증으로 전환해 만기연장토록 하라는 지침을 기보에 전달했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만기연장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기보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상환해야 하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만기연장을 적용받는다.

산자부, 신기술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우수품질, 우수재활용, 환경설비 인증업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한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력 위주의 약식심사를 거쳐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우대 지원되고 일반보증 대상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지원대상은 종전 우수품질 인증에서 신기술, 우수재활용, 환경설비 인증으로 확대됐으며,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청, 기술센터 통해 133건 기술이전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전국 19개 대학에 설치된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133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이같은 기술 이전을 통해 대학측이 올린 수입도 19억1300만원에 달해 전년도(102건, 9억83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 기술이전센터는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신기술 3400여 건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기술마케팅을 추진, 대학과 중소기업간 신제품 개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청, 500억 규모 배드펀드 조성

올 하반기에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전문 처리펀드, 일명 배드펀드(Bad Fund)가 조성된다. 또 창투사별 평가를 거쳐 정부 출자를 차등 지원하고 법령 위반 창투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뉴 KIBA비전 선포식' 개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의장 박성찬)가 지난 4월 21일 신라호텔에서 뉴 KIBA 비전 선포식을 갖고 박성찬 신임의장 체제의 연합회를 재출범했다. 정보통신부 전 · 현직 차관과 주요 통신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박성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연합회는 내부 결속력과 대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회원사를 위하여'를 모토로 회원사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책임질 국가 핵심성장동력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대표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사업자단체로의 위상 정립 ▲유무선 상의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정착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기술 및 정보 제공의 구심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콘텐츠 관련 모임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통신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자정 활동을 담당할 자율규제위원회와 저작권 권리처리를 위한 저작권특별위원회를 두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와 무선망 개방과 관련한 정보와 컨설팅 제공, 한국기술투자(KTIC)와의 제휴로 우수 콘텐츠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237개, 1조6000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 조합의 만기 도래로 부실 펀드가 속출할 것에 대비해 배드 펀드를 조성, 창투사의 부실자산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된 배드펀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운 부실 투자조합의 가치를 평가한 후 조합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 창투사의 유동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배드펀드를 통해 매입한 주식은 평가를 거쳐 인수합병(M&A)등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 벤처기업 M&A 컨설팅비용 5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은 전문기관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해 건당 500만원까지 M&A 컨설팅비용(중개 착수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이 30억원 이하인 비공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금융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술거래기관 등 각종 M&A 중개기관과 3개월 이상 M&A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한 심사를 거쳐 M&A 중개 착수금의 50%이내에서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M&A 전문기관이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했던 미공개 중소기업의 M&A가 활발해지고 M&A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 투명하고 공정한 M&A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간이평가 자가진단 서비스

한국기술거래소(대표 연원석)는 기술간이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부터 기술간이평가 자가진단시스템(OK-Value)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구축한 이 시스템은 온라인환경에서 기술거래 및 투자를 위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의 입력 결과를 근거로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각각에 대한 등급부여 및 종합의견을 볼 수 있다. 시스템은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기술은행 홈페이지(http://www.ntb.or.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벤처투자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량 벤처캐피털사를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늘고 있지만 투자가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만 집중되면서 벤처업계내 자금조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 금액은 총 112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758억원에 비해 48.3% 늘었지만 투자업체수는 122개사에서 140개사로 14.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업체당 투자금액이 6억2131억원에서 8억28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술투자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벤처투자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업체 수는 9개로 작년과 변함이 없었으며 투자 업종도 반도체, LCD 등 휴대폰 부품과 관련된 IT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KTB네트워크 역시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금액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투자패턴이 확산됨에 따라 소위 '뜨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바이오 등 IT이외 업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 이슈

머니투데이

중소 · 벤처기업은 제17대 국회에 젊은 신진 세력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젊고 도전적인 벤처정신과 코드가 맞는 정치구도가 형성된 것이라 평가하고 중소 · 벤처 관련 법안과 정책들이 조속히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4월 17일 머니투데이 16면

한국일보

지난 4월 21일부터 벤처기업의 M&A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정부가 중소 ·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M&A 관련 매물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4월 26일 한국일보 B2면

극소수 입성불구 젊은코드 기대

벤처·중기 매물 쏟아진다

'육성 특별법' 시행 후 450여社 M&A 시장에